

아이꿈터, 전주시 장난감도서관 개관

전주시드림스타트 완산센터 1층 위치... 드림스타트·법적보호대상 가정 회원가입자 무료 대어

전주시가 저소득층 아동들이 무료로 장난감을 빌릴 수 있는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키로 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시는 17일 최근 신축된 드림스타트 완산센터에서 박순중 권한대행 부시장과 도·시의원, 드림스타트 이용아동과 부모, 인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드림스타트 완산센터와 장난감도서관 개관식을 가졌다.

드림스타트 완산센터 1층에 마련된 전주시 장난감도서관은 아이들에게 창의력과 호기심을 심어주고, 발달 과정에 맞는 장난감을 제공해 신체·인지·정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문을 열었다. 또, 아동성장 발달에 적합한 단계별 장난감이 필요하지만 장난감을 구입하기 어려운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도 담겨있다.

장난감도서관에는 현재 183종 400여점의 장난감이 비치돼 있으며,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 무료로 개방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토요일과 일요일, 법정공휴일, 소독 지정일 등은 휴관일이다. 이용자는 만 5세 이하 영유아 자녀를 둔 전주시 거주 드림스타트 가정과 법적보호대상 가정(회원가입자)이며, 1회에 2점 이내로 무료 대여할 수 있다. 대여기간은 14박15일이다.

시는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전담 직인도 배치했다.

이와 관련, 이날 개소식을 가진 드림스타트 완산센터는 그간 비좁은 공간에서 활동하면서 불편을 겪었던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신축한 건물로, 연면적 298㎡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다. 특



전주시는 17일 최근 신축된 드림스타트 완산센터에서 박순중 권한대행 부시장과 도·시의원, 드림스타트 이용아동과 부모, 인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드림스타트 완산센터와 장난감도서관 개관식을 가졌다.

히, 이 건물은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위해 리프트와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단 한명의 아동도 이용하는 데 소외받지 않도록 했다.

시는 건물 1층은 장난감도서관으로 사용하고, 2~3층은 드림스타트 완산센터 사무실과 강당, 놀이공간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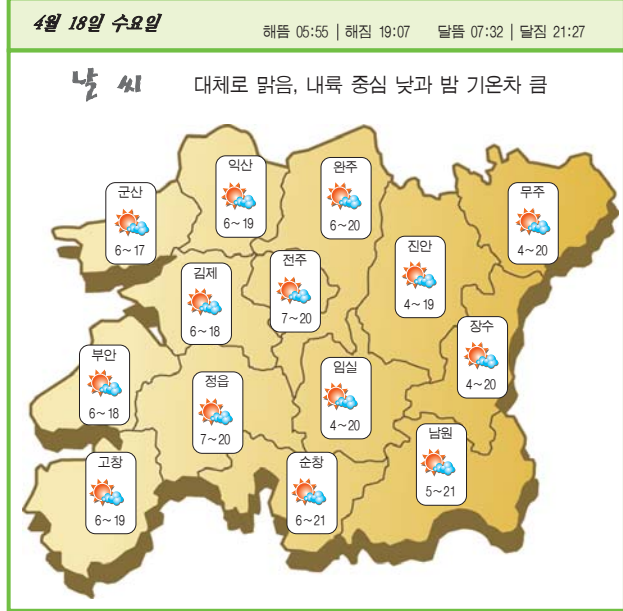
시는 신축된 드림스타트 완산센터 건물에 아동들을 위한 복지·보육·보건 프로그램 업무를 수행할 수 있

는 공간도 확보한 만큼,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신체·언어·정서지원, 가족기능의 서비스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완산센터 개관으로 더욱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자원을 연계·개발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계숙 여성가족과장은 "모든 아이

들이 행복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아들과 동행하며 응원하는 전주시 드림스타트는 우리의 미래인 전주시 모든 아동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완산센터를 신축하게 됐다"라며 "장난감도서관은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관계 향상에 도움을 드려 가정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도모 및 삶의 활력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전북대-우크라이나 한국어교육원 교류 협약

5월 우수 연구진 파견... 우크라이나 한국문화체험 진행

전북대학교가 주 우크라이나 한국교육원과 우크라이나 및 볼도바 지역 우수 학생 유치와 국제교육 교류를 위해 17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전북대와 주 우크라이나 한국교육원은 우수한 인적자원과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상호 교류 및 우호증진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국제교류협약을 통해 전북대는 공대·농생대로 구성된 우수 연구진을 5월 초 우크라이나에 파견해 세브첸코 국립대학, 키예프공과대학, 키예프환경생명과학대학, 리비우 공

과대학, 키로보그라드 농대 등 주요 대학과의 협력의 지평을 넓히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교육, 과학, 혁신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밑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오는 8월 우크라이나 한국교육원이 주관하는 우크라이나 주요인사 한국문화체험을 위한 한국초청행사를 전북대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며, 오는 9월에는 전북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이 주관하는 전라북도 5개 대학 연합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성민 기자

학교자치 역량강화 연수 실시

전라북도교육청은 학교자치 인식의 확산과 실행을 추진하기 위해 학교자치 역량강화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1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토론하고 소통하는 교무회의 활성화를 위해 '협의와 소통으로 여는 학교자치'라는 주제의 연수가 3월 29일부터 격주 목요일에 실시되고 있다. 이 연수에는 관내 유초중고의 교장, 교감, 교사, 교육전문직원 등 40명이 참여하고 있다.

연수는 학교자치활성화 지원단의 지원역량강화와 교원들의 학교자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학교자치연구 및 사례, 토론하는 교무회의, 학교민주주의 이해 등으로 구성되어 강의와 토의로 진행되고 있다. /이성민 기자

소외 대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 참가자 모집

전북대, 전북 72명, 호남·제주 대학생 18명 이내... 27일까지

저소득 학생 등 소외 대학생들에게 해외연수 지원사업을 펼치는 '과관사다리' 사업 호남·제주권 주관 대학에 선정된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이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대학생에게 해외 연수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 추진된 제도다.

이에 전북대는 전북지역 대학 72명

과 호남·제주권역 타 대학 18명 등 90명 이내의 참가 학생을 모집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4월 27일 오후 6시까지이며, 지원 요건은 소득 5분위 이하 학생 및 장애인, 탈북자 등 학부생이다.

선발 예정 인원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과 캐나다 센테니얼주립대학, 중국 상해대학에 각 20명 이내이며, 필리핀 코탈라라대학과 베트남 하노이대학 등에 각 30명 이내다.

5월 2일 오후 2시 면접시험을 거친

뒤 5월 4일 오후 6시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선정된 학생들에게는 정부 70%, 전북대 30%를 분담해 파견대학 프로그램비와 숙박비, 항공료 등의 경비를 지원해 해외 대학에서 4주 동안 연수 기회를 갖는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대 홈페이지(<http://www.jnu.ac.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북대 국제협력부(063-270-4888)로 하면 된다.

/이성민 기자

전주시 작은도서관 활성화 돕는다

사람적은도서관 '특화 지원 공모사업' 5개관 선정

전주시가 시민들의 마을사람방인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구입과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돕기로 했다.

전주시립도서관은 책과 사람, 삶을 만나는 사람적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특화 지원 공모사업' 대상으로 개골개골작은도서관과 동네방네작은도서관 등 전주시 5개 사람적은도서관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선정된 5개 사람적은도서관에는 특화 관련 도서관구입비와 문화프로그램 운영비 등 각 260만원씩

총 1300만원이 지원된다.

이번에 선정된 프로그램은 △개골개골작은도서관의 '문학-시를 담다' △동네방네작은도서관의 '미술-이야기가 흐르는 미술교실' △미소돌작은도서관의 '환경-시를 담다' △어깨동무작은도서관의 '생태-자연과 놀자' △전주시진척작은도서관의 '사진·사진을 통한 기록의 복원'이다.

이들 도서관은 오는 10월까지 각 도서관별로 관련 자료를 구입하거나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기동취재반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